

### 허영만의 '자전거 식객'



10 증도~해남

<하>



집단기출팀 자전거 미각여행 계획

1 강화도 강화대교~초지대교	15 여수~남해
2 초지대교~전곡항	16 남해~거제도
3 전곡항~당진	17 거제도~부산
4 당진~서산	18 부산~포항
5 서산~안면도	19 포항~울진
6 안면도~태안	20 울진~삼척
7 태안~보령	21 삼척~영양
8 보령~군산	22 영양~고성
9 군산~변산	23 고성~인제
10 증도~해남	24 인제~양구
11 해남~원도	25 양구~화천
12 원도~정흥	26 화천~철원
13 정흥~고흥	27 철원~파주
14 고흥~여수	28 파주~강화도

편집 | 김현우 기자 pudgala@donga.com 트위터 @pudgala72



이제는 비싼값을 내더라도 살 수 없을만큼 희귀해진 우리밀이 해남의 들녘엔 그득했다. 밀은 외형이 보리와 흡사해 필자도 밀과 보리를 구별하지 못했다. 농사 경험이 있는 허영만 화백이 그들의 차이를 설명해주기 전까지는...

## 누룽지탕에 짭조름한 조기찌개 환상궁합...

### 황금물결 해남 우리밀밭을 가다

목포 삼학 마리아의 아침은 너무 빨리 찾아왔다.

전날 폭염 속에 신안군 증도에서 목포까지 90km를 달려온지라 피곤이 극에 달해 아직 꿀 같은 단점에 빠져있는데 주변이 몹시도 소란스럽다. 여러 명의 밭소리, 두런두런 목소리...

잘 떠지지 않는 눈겨품을 힘겹게 열고 시계를 보니 아직 오전 6시도 안된 이른 시각. 다시 잠을 청해보았으나 이번엔 머리맡에서 뭔가 커다란 짐승이 쿵쿵거리는 소리까지 들린다. 화들짝 놀라 일어나보니 송아지만한 리트리버 한 마리가, 탕바닥에 있는 자루(침낭) 속에서 자고 있는 인간이 신기한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지켜보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니 마리아는 조깅하는 사람, 개를 데리고 나와 산책하는 사람들로 이미 깨어나 있었다.

어느 틈에 일어났는지 홍석민과 김은광은 벌써 스토브를 피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

다. 그때서야 낮에는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 오전에 가능한 일찍 출발해 시원할 때 주행거리 늘리기로 했던 전날 밤의 약속이 생각났다.

아침 메뉴는 미리 준비해온 누룽지탕 끓인 누룽지탕. 잠자리를 걷고 야영장을 정리하는 동안 마리아 벤치 위에 아침 밥상이 차려졌다. 반찬은 어제 저녁 목포시장 뒤편 백반골목 돌집 식당에서 얻어온 묵은지와 조기찌개다. 묵은지가 워낙 누룽지에 잘 어울리지만 비린 조기찌개는 가족이나 입맛 없는 아침거리로 도무지 생뚱맞다.

하지만 그것은 맛있다면 전국에서 첫손가락에 꼽히는 남도의 맛을 무시한 선입견에 불과했다. 찌개냄비를 향하는 숟가락질이 처음엔 띄엄띄엄했으나 일단 맛을 보고나자 경쟁이 치열해져 불과 5분여 만에 냄비가 바닥을 드러내버린 것이다.

한 뺨도 안 되는 작은 조기들을 통째로 넣고 호박, 양파, 무, 풋고추를 곁들여 짭짤하게 끓여낸 찌개는 누룽지와 절묘하게 궁합이 맞았는데 특히 전날 맘을 많이 훌리고 칼로리 소모가 심했던 우리들의 입맛에 착각 감긴다.



지원조가 가져온 시원한 꿀수박

무·호박 송송 썰어넣은 조기찌개 구수한 누룽지에 비릿한 국물 웬말

식사 5분만에 냄비 바닥 드러나고 아이고, 남도의 맛 무시한 우리가 죄인

●남실대는 해남 밀밭과 보리밭의 숨막히는 파노라마

아침을 든든히 먹은 자전거식객들은 목포의 상쾌한 아침 공기를 뚫고 해남을 향해 일제히 페달링을 시작했다.

삼호대교를 통해 영산강을 건너 뒤 대불산 일대지를 관통하고 영암호의 둑방길 금호방조제를 단숨에 넘어 해남방에 들어섰을 때 태양은 또 다시 높게 떠 아스팔트 도로를 달린다.

806번 지방도로를 통해 진입한 해남은 구릉이 발달한 지형이 무척이나 이국적이다. 그 혼란 혼란 하나 없이 굴실굴실 펼쳐진 구릉과 드넓은 평야가 우선 시각적으로 시원스럽다.

게다가 도시와는 달리 아파트는 물론 시야를 가리는 2층 건물조차 없이 아드막한 농가 주택들이 전부여서 어느 방향으로 눈을 돌려도 정답고 순한 풍경이 펼쳐지는데 우리의 자전거는 그 풍경 사이로 빨려 들어간다.

산이면에 들어서면서 더욱 독특한 파노라마가 연출됐는데 그 파노라마의 주인공은 밀밭과 보리밭이었다.

>> 23면 '자전거 식객'으로 이어집니다

## “영화” 이제는 공짜로 보여주고 돈번다!!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외 전국 1,850개의 극장에서 언제든지 무료이용

■ 15개의 공급처에서 매일매일 매출발생 이 사업은 계약된 지역 내의 유명업소 즉 대형마트, 주유소, 호프집, 식당, 패밀리에스토랑, 노래방, 휴대폰매장, 미용실, 커피전문점 등에서 손님들에게 판촉용으로 “무료영화관람권”을 나누어 주어 자신들 업소의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서비스업이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저기 다른 업소에서 서로 다투어 참여하겠다는 신청점이 늘고 있어 대리점주는 초기에 본사에서 제공해주는 15개의 공급처에 일종의 마진만 보고 “무료영화관람권”을 공급해주기만 하면 되는 아주 손쉽게 편만한 단순관리 사업이다. 또한 보험회사나 자동차회사에 근무하는 영업사원들이 개별적으로 본인의 영업을 위하여 직접 대량구매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기에 매출은 그 어떤 무점포 소자본 창업보다 훨씬 안정적이면서 꾸준히 발생이 되고 있다. 무료관람권의 종류는 두가지이다.

첫째, “1인무료영화관람권” 둘째, “2인중1인 무료영화관람권” 이 있어서 각 업소에서는 그들의 매상에 의하여 구분해서 손님들에게 나누워 주고 있기에 대리점주는 거의 매일매일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알짜배기 실속사업이다.

■ 지역독점사업으로 사계절 내내 호황 본사에서는 각 지역마다 1명에게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누구든지 먼저 예약을 해야 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기에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최고의 관건이다. 계약만 해 놓으면 수입은 보장이 되다보니 좋은 지역들은 경쟁이 매우 심할 뿐 아니라 1인이 2-3개 지역을 계약하는 분들도 여러명이나 된다. 또한 먹는업종이 아닌 서비스업이기에 일년내내 불황을 타지 않을 뿐 아니라 대리점주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공급처를 늘려주면 수익은 훨씬 늘어나는건 분명한 현실이다. 업소들은 강력한 홍보 및 단골고객화의 효과로 매출이 상승되다보니 대리점 사장님들은 업소의 대표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받으며 win-win효과를 이루어내는 최고의 부가가치 높은 사업이다.



■ 680만원으로 창업하여 월수익 500만원 도전!

하루에 각 업소마다 10장씩의 “무료영화관람권”을 손님들에게 나누워 주면 초기 15군데의 업소에서 발생되는 순이익만 해도 월 300만원이 넘어간다. 하지만 “무료영화관람권”을 많이 나누워 주면 줄수록 그만큼 매출이 증대한다는 결론이 나오기에 각 업소마다 하루에 기본으로 10-20장은 아무 부담없이 손님들에게 서비스 하고 있으므로 월수입 500만원 도전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무료영화관람권”을 대리점에서 업소에 공급하는 가격이 매우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각 업소마다 전혀 부담없이 “무료영화관람권”을 손님들에게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마다 www.moviecd.com 창업문의 02-414-3006

Q-RING DDM에서 오큐링을 검색하세요.

전 세계 남자의 자존심을 세워준 미국수입제품 오큐링!

“설마?” 하는 당신의 생각을 바꿔 드리겠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19개 나라에 8년째 판매되고 있는 OQ Ring은 힘이 약하고, 잘 시들며, 작고 빠른 분개 도음을 주는 미국 특허출원제품입니다.

OQ Ring은 특수공법으로 원적외선을 투입한 티타늄과 토르말린보석(電氣石), 전자석의 자기장이 상호 작용하여 남자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수제품입니다.

오큐링은 확용한 당일 느낄 수 있으며 3~5일간 사용하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 혈행(血行)은 발기시 혈류를 통한 산소공급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 본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14일간 사용해 보시고 이유없이 반품, 환불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oqring.kr

24시간 상담 1599-5901 010-6632-5901  
농협 : 078-01-133555 예금주 : (주)메딕플러스

행복한 부부의 특별한 선택

30대~80대까지 힘차게! 활력/지구력/체력증진!

식물에서 추출한 먹는 제품

- 30대 ~ 80대까지 힘차게!
- 활력/지구력/체력증진!
- 미국 FDA 승인/무독성 검사필
- 식약청 심사기준 통과!
- 넘치는 힘과 당당한 자신감!
- 미국 직수입 제품!

※ 먹어보고 효과없으면 반품, 환불.

상담전화: 1599-1680 / 010-2480-1680  
농협 : 078-01-133555 예금주 : (주)메딕플러스